

강원도 무역업체 e-Trade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Program for Activation of e-Trade of the Traders in Kangwon Do

엄광열(Kwang-yeol Eom)

삼척대학교 전자상경제학과 겸임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강원도 전자무역 활성화방안 |
| II. 전자무역 동향과 강원도 무역현황 | V. 결론 |
| III. 강원도 전자무역현황과 문제점 | 참고문헌 |

Abstract

Owing to the digital revolution, Internet Commerce and Electronic Commerce is having a profound influence on the global trade and internal commerce, revolutionizing the way of doing business.

e-Trade have adopted in order to the reshape of the International Trade enterprise's competitiveness, and it is now being utilized as a major export marketing instrument to develop new customers, save export transaction costs ad facilitate new work proc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rogram for activation in e-Trade of the International Trade enterprise in Kangwon Do.

However, at present, the environment of e-trade Infrastructure in Kangwon Do is very poor.

Therefore,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of e-trade of the International Trade enterprise in Kangwon Do and provides many considerations for a program for activation of e-Trade.

Key Words: e-Trade, Kangwon Do, Activation of e-Trade

* 본 논문은 2004년 한국국제경영학회 및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최근 우리 나라 경제는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경제는 IT,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주도해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지경학적으로 제조업의 블랙홀인 중국과 산업선진국인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고, 경제구조적으로는 고임금수준, 빈약한 자원, 제한된 내수시장 등으로 말미암아 원료 수입국, 생산기지, 수출자, 수출대상국이 모두 분리되는 등 대외무역 기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이다.

이러한 지경학적·경제 구조적 제약하에서 우리나라는 강점인 IT기술 및 정보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e-Trade를 들 수 있을 것이다.

e-Trade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Internet의 확산으로 마케팅, 상담, 계약, 원자재조달, 운송, 통관, 대금결제 등 제반업무를 Cyber Space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처리하는 무역거래 형태이며,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국가경쟁력제고라는 명제와 결부되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디지털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정보기술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업무처리시간 단축,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 환경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Bric's, EU 등에서도 e-Trade 영역 확대에 대비하여 e-Trade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무역거래 제반비용의 절감과 국제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e-Trade와 정보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자무역 확산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대부분의 조사 결과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며, 이 같은 현상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 지역경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기업정보화 수준 및 전자무역 인프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도내 무역기업의 전자무역 확산전략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본고는 강원도 무역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동해권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강원도 무역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강원도 무역업체의 e-Trade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문헌적인 연구로서 강원도 및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전자무역 동향과 강원도 무역현황

1. 전자무역의 개념 및 기대효과

1) 전자무역의 개념

전자무역¹⁾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원적 업무는 물론 지원업무를 Internet을 포함한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 정보 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활동을 말한다. 무역거래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와는 달리 다양한 거래 주체간의 길고 복잡한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즉, 무역거래 기회의 탐색에서 시작하여, 당사자간 협상 및 거래계약, 그리고 계약이행단계에서 거래당사자는 물론이고, 금융, 보험, 세관, 물류기업 등간에 다양한 정보와 재화, 그리고 거래대금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전자무역은 이러한 일련의 무역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무역거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 e-Trade의 개념

자료 : 산업연구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e-Trade 확산전략 연구」, 2003.3, p.7.

1) 전자무역(e-Trade)은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었으나, 2001년 개정 대외무역법에서 사이버무역, 인터넷무역 대신 전자무역이라는 공식용어가 사용되었고, 법률적으로 전자무역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정의된다(대외무역법 제2조).

2) 전자무역의 경제적 기대효과

무역프로세스는 물류, 통관, 수출입인허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때 각 프로세스에 간여하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 예컨대 물류회사, 보험회사, 은행, 관세청, 포워드, 선사, 항공사간에 다양한 문서가 교환되고, 상당한 재화의 이동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이 전체 무역액의 12%에 달한다. 이에 전자무역은 이러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현재 대표적인 전자무역의 인프라라 할 수 있는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하여 절감되는 무역부대비용이 연간 72억 6천만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무역부대비용의 절감효과는 국민경제차원에서 비용절감효과로서 그 기대효과는 무역관련 모든 기업에게 직·간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연간 145억 달러 이상의 국가적 비용절감 및 이에 따른 79억 달러의 추가적 수출증대, 12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예상되며, 기업생산성 강화 효과는 69억 달러, 무역부대비용 절감효과는 72.6억 달러, 기업 IT투자비용 절감효과는 3억 달러로 총 144.6억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²⁾

또한 관세청에 의하면 수출입물류체계 혁신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되어(현행 9.6일⇒5일 이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항만시설의 화물 적체가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한번의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Single Window 체제 구축,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표준화, 전자문서 입력항목의 최소화 등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추진 등으로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관세환급, 조사 및 검역 등 유관기관과 연계시스템 운영으로 세계 최초 100% 전자 수출입신고·수리통보체제 구축(미국96%, 일본90%),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2002)이 1시간 30분 소요(UNCTAD 권장시간 4시간), 물류비 절감 효과(1993년 대비)가 연간 약 2조 5천 억원(2002년 한국전산원)의 기대효과³⁾가 있다.

2. 국내외 전자무역 추진 동향

전자무역은 21세기 세계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경에는 전자무역이 전세계 무역량의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전자무역시장 역시 2000년 전체무역대비 4.6%에서 2005년에는 30.4%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 및 기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의 비전」, 2002.8.

3) 관세청,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을 위한 로드맵」, 보도자료, 2004.2.14.

1) 국외 전자무역 동향

해외 주요국가나 기구에서도 상황에 따라 접근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e-비즈니스, 전자정부의 추진을 통해 전자무역을 국가 또는 기구차원의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전자무역은 국가전체의 e-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써 전자정부 정책과의 밀접한 관계하에 수행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의 하나인 영국의 경우 전자무역은 국가차원의 e-비즈니스 전략(e-비즈니스 Initiative)하에서 e-Government(정부), UK-online(민간

<표 1> 주요국가의 전자무역 추진현황

국가	전자무역비전	주요추진현황	주요특징
영국	e-비즈니스 Initiative (UK-online)	- 서류없는 무역환경, 모든 정부기관의 EDI연결 - 2005년내 100% 전자공공서비스 - 인터넷기반 무역포탈서비스	- 국가 e-비즈니스전략과 동시추진 - 특별 전담기구인 e-Envoy 설치운영
싱가포르	-	- 인터넷기반 무역포탈서비스 - 수출입허가, 신고 등 EDI화(TradeNet) - 업종별 전용 EDI네트워크 서비스	- 정부주도 - 사업자제도 운영(CrimsonLogic)
미국	세계 전자무역의 추진주관	- ACS, GEIS 등 통관, 물류, 운송 등의 글로벌 통합시스템 구축 - 무역관련 자료제출, 납부창구 단일화	- 세계적 다국적기업, 기업컨소시엄 주도 - 정부지원(공공부문투자)
캐나다	-	- Single Window 서비스(ACROSS) - 2004년내 온라인 국가건설	- 인터넷 무역일원화 서비스(OSIS) 구축중
일본	아시아 Hub 구축	- TEDI 중심 무역절차표준화	- e-AMP 등 아시아 권역 통합 등에 관심

자료 : 산업연구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e-Trade 확산전략연구”, 2003.3, p.4 재구성.

<표 2> 전자무역 관련 국제기구 최근 논의 동향

국제기구	내용	비고
APEC	- 2002. 1 한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등 4개국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아태지역 국제 B2B 연계” 시범사업 착수	
EU	- 1998년 EU 역내시장 이사회에서 EU 단일시장을 전자무역 체계에 적합하도록 형성시키고 다자간 협상에 대비, 공동전략 수립을 촉구	- 프랑스가 “유럽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촉진환경 조성에 대한 각서” 발표
WTO	- 1999년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논의	
OECD	-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세, 소득세 부과 논의 - 01.1월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발표	
UN	- ebXML기반의 국제전자상거래 표준안 마련 - 전자계약 국제협약 초안 마련	
ICC	- 2002년 4월,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마련	

자료 : 산업자원부, 상계자료, p.9.

및 중소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부문별 전략과의 연계하에 진행⁴⁾하고 있다.

위의 <표 1>과 <표 2>는 주요국가의 전자무역추진현황과 전자무역 관련 국제기구 최근의 논의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2) 우리나라 전자무역 동향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추진동향은 전자무역 추진에 필요한 환경 또는 전제조건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고, 또한 인터넷 및 IT기반, 물리적 네트워크 및 관련기술 등 전자무역추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건 역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무역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기업간 협업문화 부재로 보다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e-Trade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무역단계별 전자무역 활용도 (단위 : %)

자료 : KOTRA · 한국통상정보학회, 「실크로드21 평가 및 발전전략」, 2003.6, p.17.

첫째,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이다.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승인, 통관, 물류, 결제 등 전체 무역 업무를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전

4) U.K, *On-line Annual Report*, 2001.

자무역 인프라 구축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기반 구축이다. 중소기업이 전자무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새로운 전자무역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다. 셋째,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이다.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여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이다. 넷째, 전자무역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등의 개선이다. 전자무역의 실행을 제약하거나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기존의 법, 제도, 관행 등의 개선이다.

또한, 우리나라 무역업체의 전자무역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무역업체는 주로 해외 시장정보 수집, 오피 및 거래협상, 거래선 발굴 등에서 전자무역을 활용하고 있다. 무역단계별로 전자무역 활용비중이 30~50%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들의 누적비율을 살펴보면, 평균이 23.0% 수준으로 전체 무역단계에서 아직 전자무역의 활용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무역단계별로 구분하여 30~50%이상 전자무역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누적비율 보면, 해외시장정보 수집이 32.5%, 오피 및 거래협상이 29.6%, 거래선 발굴이 29.5%로 나타나 주로 이들 단계에서 전자무역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금결제(13.8%), 신용조회(14.5%) 등에서는 전자무역의 활용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한편, 우리나라 무역인력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10년
추가 수요		22,400명	26,100명	29,800명	27,300명	74,600명
무역 업체	대학	5,600명	5,700명	5,800명	5,600명	5,600명
	전문대학	2,800명	2,200명	1,500명	2,500명	2,500명
	민간교육기관	20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소계	8,600명	8,100명	7,500명	8,400명	8,400명
과부족		-13,800명	-18,000명	-22,300명	-28,900명	-66,200명

자료 : 이호건, "현장중심의 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 「2004년도 하계경기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6.5, p.80.

3. 선행연구의 검토

전자무역관련 선행연구는 다수의 논문이 국내외로 발표되었다. 이중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논문들은 최근에 발표된바 있다.

이에 보고는 지역경제와 관련한 전자무역 관련 논문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장두채·신정환(2004)⁶⁾ 부산지역 수출기업들의 대중국 시장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

5)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계의 전자무역 활용실태 조사 결과」, 2002.7.

6) 장두채·신정환,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전자무역활성화 방안",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6.

라 지역 수출기업들의 전자무역활용을 통한 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한·중 전자무역거래관련 협력의 필요성과 한·중 양국간의 협력동향, 부산지역 수출기업들의 전자무역활용실태를 분석하여 대중국 전자무역시장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장호(2004)는⁷⁾ 광주·전남지역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전자무역의 도입 및 활용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강조하며,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구조, 정보화 기반을 분석 한후 전자무역활성화방안으로 전자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종득(2004)은⁸⁾ 광주·전남지역 전자무역실태와 전자무역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한 교육현황을 살펴본 후 대학의 역할, 기업체의 역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통해 전자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정기(2004)는⁹⁾ IT사업을 통해 무역전문 인력의 조기양성과 산학협력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서 실무교육과 현장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핵심요소라 하였다.

3. 강원도 산업현황과 전자무역 인프라

1) 강원도 산업의 일반현황 및 특징

강원도의 면적은 남한의 17%이나 인구는 약 156만명(3.3%)에 불과하며, 총생산과 제조업 비중도 각각 전국의 2.5%, 3.8%로 미미한 편이며,¹⁰⁾ 수출규모도 0.2%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는다.

강원도는 GDP 비중(전국의 2.5%) 및 제조업 비중(3.8%)에 비하여 수출은 0.24%로 매우 낮은 수준¹¹⁾이다. 강원지역 산업구조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지역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¹²⁾이다. 이는 다음 <표 4>와 같다.

둘째, 고용사정이다.¹³⁾ 2004년 5월중 15세이상 인구는 1,158천명이며 2003년 5월대비 5천명(-0.4%)이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711천명(취업자 697, 실업자 14)이며 2003년 5월대비 1천명(0.1%)이 증가(경제활동참가율 61.4%)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447천명이다.

7) 김장호, "광주·전남 전자무역 활성화방안", 「2004년도 하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6.5.

8) 김종득, "산·학·관 연계를 통한 전자무역활성화방안 -전자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제1회 지역e-Trade 활성화포럼-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전자무역활성화」, 광주상공회의소·한국통상정보학회, 2004.6.4.

9) 전정기, "영남대학교 IT사업단의 전자무역수행과 그 성과", 「제1회 지역e-Trade 활성화포럼-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전자무역활성화」,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한국통상정보학회, 2004.5.28.

10)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최근 강원 무역동향과 정책과제」, 2003.11.27, p.5.

11)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지역 주요산업의 경쟁여건 분석과 산업정책 방향」, 2003.8, p.8.

12) GRDP는 한 지역의 영역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가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해당 지역내에서 발생한 소득 총생산액이다.

13) 강원도 통계사무소, 2004.6.15.

<표 4> 강원지역 GRDP

구분	전국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GRDP(십억원)	581,516.0	14,598.2	20,280.0	27,896.8	38,908.6	40,129.0	18,673.0	26,812.7
구성비(%)	100.0	2.6	3.5	4.8	6.6	6.9	3.2	4.6
1인당 GRDP(천원)	11,985	9,460	13,510	14,544	14,021	12,767	9,522	13,021
전국비(%)	100.0	78.9	112.7	121.3	116.9	106.5	79.4	108.6

자료 : 통계청, 2002년 기준.

셋째, 실업자 동향이다. 2004년 5월중 실업자는 2003년 5월에 비해 2천명 증가한 14천명(전국 평균 실업자수는 788천명)이며, 실업률은 2.0%(전국평균 실업율은 3.3%)로 2003년 5월대비 0.3% 증가하였다.

넷째, 자금사정 및 어음부도율이다.¹⁴⁾ 2004년 5월중 강원지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액 제외 기준)은 0.47%로, 2003년 9월 0.55%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어음교환액(1조 2,113억원)은 4월(1조 2,454억원)에 비해 감소(342억원)하였으나, 어음부도금액(57억원)은 원주지역 일부 섬유업체의 부도 영향 등으로 4월(33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기업 신설 및 부도업체 동향이다(한국은행, 2004, 7). 2004년 5월중 신설법인수는 49개로 4월(44개)보다 5개 업체가 증가하여 2개월 연속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되었으나 2004년 1~5월중 신설 법인수는 317개로 2003년 같은 기간의 신설 법인수(449개)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영서지역이 기타 군지역(4개→8개)을 중심으로 4월보다 6개가 증가한 32개, 영동지역은 1개 업체가 줄어든 17개 법인 이 신설되었다. 한편, 2004년 5월중 강원지역 신규 부도업체수(당좌거래 정지업체 기준)은 10개로 4월보다 3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2004년 1~5월중 부도업체수(42개)도 2003년 같은 기간의 부도업체수(32개)를 상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5개, 건설업에서 3개, 제조업에서 2개 업체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속초에서 3개, 원주·강릉·동해에서 각각 2개, 태백에서 1개업체가 발생하였다.

한편, 강원도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취약한 산업기반이다. 1970년 강원도의 사업체수는 전국의 4.3%를 차지했으나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1980년에는 3.0%, 1987년에는 1.7%, 그리고 2001년에는 3.7%를 차지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사업체 수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종업원 수, 그리고 생산액 규모면에서도 모두 1970년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증가율은 1993~2000년 기간 중 32%로서 전국수준에 비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현재 강원도에는 총 4,062개의 제조업체이며, 이 중 70.1%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며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도 27.3%를 차지하고 있다.

즉,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0.3%에 불과한 13개 업체뿐이며 나머지 99.7%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며, 중소기업들의 1개 업체당 부가가치생산액 수준은 5억9천만원으로서

14) 한국은행, 2004.7.

전라남도를 제외한 최하위 수준이다. 셋째, 사회간접기반시설의 미비이다. 사회간접기반시설의 지역적 편재로 인해 기업유치, 판로확보 등에 애로점이 크다. 넷째, 전근대적 산업구조이다. 산업구조는 2000년 기준으로 농림어업이 8.7% 광공업이 18.5%, 그리고 서비스업 및 기타가 72.8%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만으로는 5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 비해 제1차 산업의 비중이 크고 제2차 산업인 광공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중에서도 광업을 제외한 순수 제조업의 비중은 16.5%에 지나지 않아 전국 평균치인 30% 내외에 비하면 매우 낮다.¹⁵⁾

2) 강원도 전자무역 인프라

강원도는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특히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⁶⁾, 이를 위해 기업정보화 및 e-비즈니스 확산에 관한 전략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표 5> 2002년 정보화 투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비교 (2003년 예산액)
시스템관련	1,120	1,605
교육관련	169	284
시스템이외	123	827
합계	1,412	2,716

자료 : 춘천상공회의소, “춘천권역 정보화 실태조사분석”, 춘천ECRC, 2002.12, p.27.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정보화에 대한 투자 역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것은 도내 기업이 열악한 자금사정과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정보화 추진의 측면에 있어서 추진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계획이 세부적이지 못하고, 전문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자금력 등 영세기업으로서 갖는 어려움으로 인해 정보화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은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한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업정보화 수준의 조사 결과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기업정보화 수준은 조사대상 15개 광역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평균 31.5점인 것으로 나타나, 도내 기업의 정보화 수준의 열악성이 예상보다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15) 구정모, “강원도 중소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 『2003 강원지역 중소기업정책보고 및 토론회자료』, 2003.4.28, pp.2-3.

16) 조사결과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26.8%, 외부교육에 해당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기업은 3.2%에 그쳤으며, 교육내용 50% 이상이 정보화 및 e-비즈니스 확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 춘천상공회의소춘천권역, “정보화 실태조사분석”, 춘천ECRC, 2002.12, p.27.

<표 6>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업정보화 수준

(단위 : 업체수)

지역	정보화수준							평균점수
	계	40이하	40~50	50~60	60~70	70~80	80이상	
서울	494	83	95	135	107	55	19	54.4
부산	224	73	63	47	28	9	4	47.1
대구	88	30	17	26	11	4	0	47.4
인천	187	45	51	56	26	7	2	48.6
광주	49	11	24	12	2	0	0	45.4
대전	20	9	4	3	2	1	1	47.1
울산	95	38	27	20	9	1	0	42.3
경기	574	179	141	138	81	25	10	47.9
강원	123	89	20	9	5	0	0	31.5
충북	193	74	47	47	19	5	1	43.7
충남	69	12	21	19	11	5	1	50.6
전북	86	26	28	15	12	4	1	46.7
전남	43	15	18	9	1	0	0	41.8
경북	227	87	52	50	20	8	10	45.4
경남	169	49	41	44	23	8	4	48.6
제주	38	11	14	7	5	1	0	45.6
계	2,679 (100%)	831 (31.0)	663 (24.7)	637 (23.8)	362 (13.5)	133 (5.0)	53 (2.0)	47.5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조사 결과”, 2000.3, p.18.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은 자금이나 인력 면에서 독자적인 전자무역의 추진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전무한 강원지역의 대다수 기업들은 독자적인 전자무역 추진 및 e-비즈니스 도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무역 추진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 교육부문의 취약성,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열악성 등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자금력이 열악한 도내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며, 이들을 구입하더라도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의 부담이 커서 도내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전자무역시스템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

III. 강원지역 전자무역현황과 문제점

1. 강원지역 무역기업의 현황

강원지역 무역기업은 2003년 10월말 현재 571개사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3년 10월말 현재 우리 나라 총 무역업체수(96,906개사)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이며, 이는 제주도(186개사) 다

음으로 가장 적은 수치이다. 권역별로는 강원도내 18개 시·군중 영동지역¹⁷⁾이 215개사로 가장 많으며, 시군별로는 원주시가 135개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춘천(115), 강릉, 동해, 속초시의 순이다. 특히, 춘천시과 원주시는 250개사로 전체의 43.8%가 포진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내 수출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10만불 미만의 수출업체가 403개사로 전체의 68.3% 차지하며,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의 수출업체는 174개사, 100만불 이상 수출업체는 45개사로 전체의 7.6%에 불과하다(KOTIS, 2003년 10월말 기준).

1) 무역규모 분석

2003년 10월말 현재¹⁸⁾ 강원도 수출은 약 376백만달러로 우리 나라 총수출의 0.24%에 불과하나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수출증가율은 25.1%로 전국 평균(17.9%)을 상회하고 있다.

수입은 2000년부터 3억 달러 수준이며, 무역수지는 2002년 이후 흑자세로 반전하고 있다.

<표 7> 강원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분		1995	2000	2001	2002	03. 1~10월
수출	전국	125,058(30.3)	172,268(19.9)	150,439(-12.7)	162,471(8.0)	155,946(17.9)
	강원도	267(19.5)	337(-6.7)	306(-9.3)	372(21.3)	376(25.1)
	비중	0.21	0.19	0.20	0.23	0.24
수입	전국	135,119	160,481	141,098	152,126	145,351
	강원도	402	380	320	329	307
	비중	0.3	0.21	0.23	0.22	0.21
수지	전국	-10,061	11,787	9,341	10,344	10,595
	강원도	-135	-43	-14	42	69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최근 강원 무역동향과 정책과제", 2003.11.27, p.6.

<표 8> 광역자치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지역명	2002		2003. 1~10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경기	31,965	19.7	29,000	18.6
2	울산	24,177	14.9	22,356	14.1
3	서울	25,863	15.9	21,920	14.0
4	경북	17,566	10.8	20,431	13.1
5	경남	17,336	10.7	15,930	10.2
6	충남	15,151	9.3	15,399	9.9

17) 강릉(63) 속초(48) 동해(53) 양양(20) 삼척(14) 고성(11) 태백(6)을 중심권역으로 분류(2003. 10월말 기준)

18) 강원도 연도별 수출은 2000년 0.19%, 2001년 0.20%, 2002년 0.23%, 2003년 0.24%이다.

순위	지역명	2002		2003. 1~10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7	전남	6,426	4.0	7,304	4.7
8	인천	5,681	3.5	6,621	4.2
9	부산	4,836	3.0	3,966	2.5
10	충북	4,019	2.5	3,780	2.4
11	광주	3,598	2.2	3,273	2.1
12	대구	2,559	1.6	2,273	1.5
13	전북	1,943	1.2	2,231	1.4
14	대전	934	0.6	1,039	0.7
15	강원	370	0.2	376	0.2
	총 수출	162,471	100.0	155,946	100.0

자료 : KOTIS, 전계서, p.7.

2) 수출구조 분석

강원도내 산업별 수출구조는 <표 9>에서 보듯이 2003년 들어서 공산품 비중(81%)이 과거 3년에 비해 약 3%p 상승하였으며, 경공업제품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중화학제품의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다.

<표 9> 강원도 수출구조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0		2001		2002		03. 1~10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 산품	74	22.0	67	21.9	81	21.8	71	18.9
(농산물)	40	11.9	44	14.4	56	15.1	49	13.0
(수산물)	31	9.2	22	7.2	22	5.9	20	5.3
공 산 품	263	78.0	239	78.1	291	78.2	305	81.1
(경공업)	67	19.9	55	18.0	49	13.2	45	12.0
(중화학)	196	58.1	184	60.1	242	65.2	260	69.1
총 수출	337	100.0	306	100.0	372	100.0	376	100.0

자료 : 전계서, p.8.

또한 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2003년 10월말 현재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28.4%), 일본(23.5%), 중국(12.0%), 홍콩(2.1%), 독일(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주요 수출품목은 의료기기, 시멘트, 주류(소주, 맥주) 자동차부품, 수산가공품 등이며 이들 10대 품목이 강원도내 수출의 67%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의료기기는 원주시의 전략육성 산업으로 수출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10월중 자동차부품, 수산물, 주류, 의료기기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변압기, 불펜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밖에 결제형태별 수출은 L/C 방식(일람출급 L/C: 19.3%, 기한부 L/C: 0.5%)은 줄어드는 대신 단순송금방식(T/T) 방식은 증가 추세이며, 2003년 10월말 현재 T/T에 의한 수출대금 결제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3) 수입구조 분석

강원지역 성질별 수입구조는 2003년 10월말 현재 원자재 비중(4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본재(35.7%), 소비자재(19.3%)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유연탄,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대개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10>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 천달러, %)

품목명	2002			2003. 1~10월		
	금액	증감율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유 연 탄	33,112	-12.4	10.1	31,635	15.2	10.3
자동차부품	37,616	-4.5	11.4	24,720	-26.8	8.1
의료기기	16,746	-1.9	5.1	19,683	41.2	6.4
대 개	21,101	3,258.0	6.4	14,203	-15.7	4.6
정밀화학원료	8,659	-43.1	2.6	8,591	17.2	2.8
수산가공품	13,823	44.1	4.2	8,194	-35.5	2.7
총 수입	329,401	3.1	100.0	307,055	11.9	100.0

자료 : 전계서, 2003.11.27, p.11.

<표 11>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

국 가	2002			2003. 1~10월		
	금액	증감율	구성비	금액	증감율	구성비
중 국	62,444	-7.3	19.0	62,749	23.3	20.4
미 국	67,570	-22.9	20.5	58,250	0.0	19.0
일 본	38,869	-0.8	11.8	41,828	32.9	13.6
러시아	41,107	376.9	12.5	34,353	3.1	11.2
독 일	15,994	0.4	4.9	14,006	5.5	4.6
호 주	13,091	9.8	4.0	9,361	-14.9	3.0
오지리	6,961	-13.9	2.1	11,464	148.0	3.7
남아공	9,657	17.4	2.9	8,614	1.0	2.8
멕시코	12,328	43.3	3.7	5,998	-47.4	2.0
총수입	329,401	3.1	100.0	307,055	11.9	100.0

자료 : 전계서, 2003.11.27, p.12.

한편, 주요국별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의 순이며, 근년 러시아산 대개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올해 들어 감소 추세에 있고, 2003년 들어 멕시코산 조미오징어 수입도 대폭 감소 추세에 있다.

2. 강원지역 무역의 문제점

1) 특정품목 수출의존성 및 수출산업기반 취약성

강원지역 주요 수출품목은 의료기기, 시멘트, 주류(소주, 맥주) 자동차부품, 수산가공품 등이며 이들 10대 품목이 강원지역 수출의 67%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수산물, 주류, 의료기기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변압기, 불펜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등 일부품목의 수출의존도가 높다. 또한 제조업체는 1,300여개, 무역업체는 570여개에 불과하여 수출산업기반이 취약하며, 행정당국의 수출마인드 결여 및 인식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2) 물류비 부담 등 무역지원 인프라 열악성

강원지역은 개항인 동해항과 묵호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부재하고,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이 열악하며, 전시·컨벤션시설과 특급호텔 부족 및 노후, 세관(출장소) 및 관세사 사무소 부족,¹⁹⁾ 포워드 등 무역관련 서비스업체 부족, 수출보험공사 부재 등 무역지원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강원지역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 물류비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²⁰⁾

3) 기업정보화의 열악성

강원지역 기업정보화 수준은 중소기업청이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한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업정보화 수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기업정보화 수준은 조사대상 15개 광역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평균 31.5점인 것으로 나타나, 도내 기업의 정보화 수준의 열악성이 예상보다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²¹⁾ 이처럼 도내 기업의 기업정보화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이유로는 첫째, 정보화를 전담할 추진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즉, 대기업이 전무한 강원지역의 대다수 기업들은²²⁾ 독자적인 정보화 추진 및 e-비즈니스 도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

19) 강원지역세관 및 관세사 현황은 영동지역의 동해세관과 속초출장소가 있으나, 영서지역은 전무하여 서울중부지역본부세관(성남세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세사현황은 본사사무소기준수 3, 사무소 수 4, 관세사수 5명으로 나타나 있다. ; 한국관세사회, 2004.4.30.

20) 실제 강원지역의 수출업체와 여타지역과 물류비를 부산항까지 내륙운송비(ITEU 기준)를 비교해 보면, 서울·수도권은 44만원 정도, 강원지역은 평균 68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업체는 경기도, 충청도 등 인근 지역으로 공장 이전하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2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조사 결과", 2000.3, p.18.

실이다. 둘째, 정보화를 추진할만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²³⁾. 셋째, 교육부문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정보화 교육기관이 수도권, 충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도내 기업은 교육혜택의 기회는 물론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기본지식의 습득도 곤란한 형편이다. 넷째, 정보화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²⁴⁾이다.

4) 전자무역지원 인프라와 무역전문인력양성 교육지원인프라 미비

강원지역은 전자무역을 전담할 추진체계의 미비,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부족, 전자무역관련 교육부문의 취약,²⁵⁾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열악성과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의 한계성으로 새로운 Needs에 부합하는 투자를 못하는 등 인프라 기반이 취약하며, 무역업체에 대한 연수기회도 무역업체대상 연수는 23%에 불과하여(연간 1~3회 정도의 연수과정 개설), 무역업체가 필요한 때에 교육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수과정도 다양하지 못하며 내용도 서울에서 시행하는 연수과정을 상당부분 축소(시간, 과목)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연수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전문화, 특성화 유도 및 지원 부족으로 무역인력 수요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21세기 수출강원을 선도할 무역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무역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이 결여되어 있다.

IV. 강원도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1. 전자무역 추진체계의 확립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강원도와 무역협회 강원지부가 공동·운영하는 강원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하여 업체의 전자카탈로그 관리, 무역사이트 홍보 및 해외마케팅 활동 관리, 전자무역 가능업체 DB 등록, 거래알선 전문 사이트(EC21)와 시스템 및 DB 연계, 통상정보 자동매칭시스템 구축(이메일 등록)등

2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관리정보시스템(FEMIS)의 전국 공장등록 현황분석 및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강원도내 등록 제조공장의 약 30%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며, 종업원 50인 미만의 업체가 총 9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민일보, 2003.3.13.

23) 산업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e-비즈니스의 인력 부족은 2003년 24만명, 2004년에는 26만명, 2005년에는 29만명으로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임광열·김치호, "기업정보화실태 및 e-비즈니스확산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6.25.

25) 현재 강원지역의 무역관련 교육기관은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관동대학교, 강릉대학교 5개 대학교이며 (2005년부터 삼척대학교 개설예정), 강원도 청년인력사업과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지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진한 실정이다.

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교포 무역인을 글로벌 네트워크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구매선으로 육성하는 한편 해외교포 무역인협회(OKTA)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유력 교포 무역인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하고,²⁶⁾ 해외교포무역인과 강원도 유망전시회를 연계한 구매상담회 개최하여 품목별 유망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계인프라 구축 등 전시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강원 무역아카데미 재정립과 중소기업 e-Trade 인프라 지원

강원도는 무역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그 동안 청년무역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 즉, 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무역인력을 양성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강원지역의 현실에 맞는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북한 등 환동해권역을 중심으로 한 전자무역관련 시장정보 및 현장실무, 이론교육 등 강원지역 기업의 특수목적에 부합하는 Customize화된 연수과정을 통하여 수출시장 개척의 첨병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내대학 전통산업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전자무역 수요에 부응하는 무역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둘째,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자무역연수 실시이다.

전자무역관련 교재 및 강의내용을 멀티미디어 DB화하여 실시간 또는 On-Demand 방식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적·지리적 여건에 관계없이 수강희망자를 수용토록 함으로써 무역전문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고 업계에게 체계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타 연수기관과의 연수과정 교환 및 무역전문 연구원을 통한 교육이다.

무역거래기반조성법률에 의거 전자무역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과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타 기관 또는 대학(대학원)과의 상호 연수과정 교환을 통하여 무역업무에 필요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원지역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기에, 중소기업의 e-Trade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무역, e-Biz 등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하며, 연구개발 및 자동화·정보화 추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전자무역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²⁷⁾ 전자무역관련법규의 교육,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²⁸⁾ 즉, 중소기업체의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26) 강원도 출신 및 해외교포를 무역수출역군으로 활용하고자 해외 현지 사회·문화 등에 익숙하고 인맥도 갖춘 해외교포 2~4세를 대상으로 '강원도 해외 무역스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해외 각지의 교포를 강원도에 초청하여 '강원도 해외 무역스쿨'과 해외 현지에서 실시하는 '강원도 해외 현지무역스쿨'로 나누어 실시하여, 강원인의 긍지 함양과 한국 비즈니스 상관습 등 무역실무와 수출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체 견학 등을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수요자가 현지의 수출도우미, 현지동향 리포터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형성을 적극 유도하여 나가야 한다.

27) 현재 ERP,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 투자를 위한 시설세 도입에 대한 관세감면을 중소기업 50%로 일괄 적용하고 있음.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운영, 수출입 업무 처리시간 등의 경비절감을 이루어야 한다.

3. 강원지역 전자무역 전문 T/F 운영 및 Cluster 전략 수립

강원도 통상교역의 대상 국가별(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전문직 공무원 발탁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및 상담, 각종 지원을 위한 「Kangwon e-Trade Desk」를 운영하여 e-Trade 관련 정보, 상담, 지원을 위한 One-Stop Services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e-Trade을 확산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전자무역 추진체계의 역할을 하며, 무역유관기관 및 교육기관, 전문연구원 및 도내 기업이 연계가 된 “e-Trade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를 강원도 지역기반에 맞는 “전자무역 확산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는 전자무역 선도화 전략, 전자무역 지원 인프라 구축전략, 전자무역 단계적 추진전략, 전자무역투자효율화 중심전략, 전자무역 기업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전략 순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4. 특화전략산업의 Digital Contents 모델화 전략

강원지역 특화전략산업의²⁹⁾ 주요 수출유망품목³⁰⁾을 발굴, 기술개발 추진하고 Digital Contents 화합으로써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체계화를 통하여 주요상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고, 해당상품의 Digital Contents의 지식산업화 등에 따른 상품전략화가 가능해진다.

이는 해당산업 및 기업체의 e-Trade 도입은 물론, e-Trade를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 판로의 국제화 등이 확보됨으로 Digital Contents 모델화 전략을 통한 경쟁환경과 유통환경을 국제화·정보화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으로 전환시킴으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8)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관세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관세환급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업체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중소기업 71개사를 대상으로 '관세환급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1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제도 간소화와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강원도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더 절실하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세환급실태조사, 2004년 7월 25일 보도자료.

29) 현재 강원도는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한 「3각 테크노벨리」 조성을 통해 「청정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춘천권역은 생물산업과 연계한 청정환경농업, 관광농업(Green Tourism) 활성화, 원주권역은 의료기기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배후 건강·실버산업 활성화, 강릉권역은 해양생물산업과 연계한 수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30) 주요 지역특화 유망상품은 태백고원지대의 파브리카, 인제군의 백합과 방울토마토, 대관령일대 여름딸기, 폐광지역의 백합과 버섯류, 송이, 더덕, 신선 채소류 등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4. 서비스산업의 Digital Contents와 전략

강원지역의 청정자연환경을 “동북아관광 중심지”에 초점을 맞추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Digital Contents화 전략이다. 이는 최근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한류역풍”의 소재지와 설악·금강산 국제관광권, 수도권 배후 휴양관광권, 해양체험 관광권 등의 서비스 상품을 통합하는 글로벌 Digital Contents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e-Trade 실현이다.

이는 강원도가 2011년까지 연간 약 6,400만명의 관광객을 연간 약 8,800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³¹⁾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5. SOC 시설 및 수출산업 인프라 확충

강원지역 수출산업 입지여건은 높은 물류비용 부담이 수출산업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³²⁾ 개항만(양양국제공항과 동해항, 북평항)을 통한 수출 활성화³³⁾ 항만의 수출시설 확충, 물류비용 절감, 수출업체 유치확대 등을 통한 개항만(양양국제공항과 동해항, 북평항) 중심의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부산·광양항에 편중된 수출입 물동량 병목현상 완화와 영동권 무역업체뿐만 아니라 영서권, 충북권, 수도권 일부 소재업체의 과다한 물류비용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동해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이 절실하며, 도로 및 철도망의 조기확충 및 영서지역의 세관 설치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영서지역 수출업체가 수도권지역 소재 세관에서의 통관수속에 따른 과다한 시간 및 경비부담을 경감시켜 수출채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에 영서지역(원주)에 세관 또는 출장소 설치 절실하다.³⁴⁾ 또한 강원지역 무역업체(577개)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 강원지사의 조속한 설립이 요청된다. 강원도내 무역업체에서 2004년 6월 현재 수출보험을 이용한 업체는 30개사에 금액이 320억원으로 2003년 147억원에 비해 증가³⁵⁾하였으나 도내 수출보험공사가 없어 서울 등지에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수출금융권의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수출보험공사 강원지사 설립이 요청된다.

31) 행정자치부, 「지역경제리뷰」, 제19호, 2003.6.13, p.12.

32)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설문조사결과 2002년 6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도내 130대 기업과 국내 30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내 수출산업 입지여건’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33) 실제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경상남도의 경우 48만원이 소요되나 강원도 경우 87만원이 소요되며, 수출 농산물은 대부분 부산(화훼류, 신선 채소류)이나 인천공항(여름딸기)을 통하여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항과의 원거리에 소재하여 물류비가 타도에 비해 배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34)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최근 강원 무역동향과 정책과제”, 2003.11.27, p.14.

35) 원주상공회의소, 2004, 6.(특히 원주지역은 교통 요지이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첨단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수출금융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V. 결 론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 강한 국가, 강한 기업은 어려울 때 더욱 강해진다. 그래서 불황과 어려움의 시기에 경쟁력이 개발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전자무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전자무역이 우리나라 무역여건을 개선하고 국가간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통한 e-Hub화로 발전시킬 전략이 필요한바, 기존의 e-Trade사업의 합목적성을 달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수행도 절실하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강원도 전자무역활성화의 주요 문제점은 특정품목의 수출의존성 문제, 무역 인프라의 부족문제, 물류비 부담의 문제, 도내 기업정보화 수준의 열악성문제, 수출산업기반 취약성과 수출 마인드 부족의 문제, 전자무역 지원 인프라 부족문제, 무역전문인력양성 교육지원인프라 부족 등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지역의 산·학·연이 연계된 “e-Trade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e-Trade 확산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강원도 e-Trade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 전자무역 글로벌 네트워크의 운영이다. 즉, 강원도와 무역협회 강원지부가 공동·운영하는 강원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하여 업체의 전자카탈로그 관리, 무역사이트 홍보 및 해외마케팅 활동 관리, 전자무역 가능 기업체 DB 등록, 거래알선 전문 사이트(EC21)와 시스템 및 DB 연계, 통상정보 자동매칭시스템 구축(이메일 등록)등이 필요하다.

둘째, 강원도 무역아카데미 재정립을 통한 전자무역활성화 전략이다. 강원도는 무역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그 동안 청년무역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양질의 무역인력을 양성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의 현실에 맞는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북한 등 환동해권역을 중심으로 한 전자무역관련 시장정보 및 현장실무, 이론교육 등 강원도 기업의 특수 목적에 부합하는 Customize화된 연수과정을 통하여 수출시장 개척의 첨병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셋째, e-Trade 클러스터를 통한 전략 수립이다. e-Trade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전자무역 추진체계의 역할을 하며, 무역유관기관 및 교육기관, 전문연구원 및 도내 기업이 연계가 된 “e-Trade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무역 확산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넷째, 강원도 전자무역 전문 T/F 운영이다. 이는 유망 품목(지역특화 산업)을 발굴, 기술개발 추진하고 강원도 통상교역의 대상 국가별(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전문공무원 발탁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및 상담, 각종 지원을 위한 「Kangwon e-Trade Desk」를 운영하여 e-Trade 관련 정

보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강원도 특화전략산업의 Digital Contents화 전략이다. 강원도 특화전략산업의 주요상품을 Digital Contents화함으로써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체계화를 통하여 주요상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고, 해당상품의 digital Contents의 지식산업화 등에 따른 상품전략화가 가능해 진다.

여섯째, 서비스산업의 Digital Contents화 전략이다. 강원도의 청정자연환경을 “동북아관광 중심지”에 초점을 맞추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Digital Contents화 전략이다.

일곱째, 강원도 중소기업의 e-Trade 인프라 지원이다. 강원도 중소기업 e-Trade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무역을 포함한 e-Biz 등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 및 자동화·정보화 추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전자무역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SOC 시설 및 수출산업인프라 확충이다. 강원지역 수출산업 입지여건은 높은 물류비용 부담이 수출산업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개항만(양양국제공항과 동해항, 북평항)을 통한 수출 활성화, 항만의 수출시설 확충, 물류비용 절감, 수출업체 유치확대 등을 통한 개항만(양양국제공항과 동해항, 북평항) 중심의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영서지역 수출업체가 수도권지역 소재 세관에서의 통관수속에 따른 과도한 시간 및 경비부담을 경감시켜 수출채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에 영서지역(원주)에 세관 또는 출장소 설치와 무역업체(577개)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 강원지사의 조속한 설립이 요청된다.

한편 본 연구는 열악성을 면치 못하는 강원무역의 현주소를 통하여 최적 대안으로 전자무역의 도입필요성과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문헌연구와 일반론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으로 차후 강원도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이 추가적으로 요망되는 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를 구체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관세청,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을 위한 로드맵”, 보도자료, 2004.2.14.
- 김장호, “광주·전남 전자무역 활성화방안”, 「2004년도 하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6.5.
- 김종득, “산·학·관 연계를 통한 전자무역활성화방안 -전자무역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제1회 지역e-Trade 활성화포럼-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전자무역활성화」, 광주상공회의소·한국통상정보학회, 2004.6.
- 구정모, “강원도 중소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 「2003 강원지역 중소기업 정책보고 및 토론회자료」,

2003.4.28.

- 산업연구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e-Trade 확산전략 연구”, 2003.3.
- 산업자원부, “전자무역(e-Trade) 활성화 종합시책”, 2001.5.
- _____, “전자무역 관련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2001-2002.
- _____, “전자무역 2010년 중장기 발전 비전”, 2002.8
- 심상렬, 「전자무역 국제동향」, 전자무역촉진 종합대책 워크샵(산업자원부), 2001.3.
- 엄광열·김치호, “기업정보화실태 및 e-비즈니스확산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6.25.
- 장두채·신정환,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전자무역활성화 방안”,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6.
- 전정기, “영남대학교 TI사업단의 전자무역수행과 그 성과”, 「제1회 지역e-Trade 활성화포럼-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전자무역활성화」,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한국통상정보학회, 2004.5.28.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조사 결과”, 2000.3.
- 춘천상공회의소, “춘천권역 정보화 실태조사분석”, 춘천ECRC, 2002.12.
- 한국생산성본부, “무역인력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2003.11.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의 비전」, 2002.8.
- _____, “사이버무역에 관한 무역업계 실태조사”, 2000.6.
- _____, “무역업계의 전자무역 활용실태 조사 결과”, 2002.7.
- _____, 강원지부, “최근 강원 무역동향과 정책과제”, 2003.11.27.
-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지역 주요산업의 경쟁여건 분석과 산업정책 방향”, 2003.8.
- 한국은행, 2001.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리뷰」, 제19호, 2003.6.13.
- Gartner Institute, *e-Business Fundamentals*, 2000.
- U.K., *On-line Annual Report*, 2001.
- UNCTAD, *Electronic Commerce and Development Report*, 2002.11.
- Zwass, V., “Electronic Commerce: Structures and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Vol.1, No.1, Fall 1996, pp.3-23.
- KOTIS, 2004.